

사찰문화재 보호책 "허술"

종단·학계 방법 제시해도 구체적 실행 없어

사찰문화재 보존·관리의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해마다 수십점의 불상·불화들이 알게 모르게 사찰에서 사라지고 있다. 송광사 영정 도난사건으로 부각된 사찰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놓고 조계종 문화사회부,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학자들 사이의 의견 개진이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공개적인 토론장을 통한 체계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조계종의 성보박물관 건립등의 사업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교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상태다.

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단내에 불교미술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과 △불교미술사 전공 대학원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씨는 또한 신앙의 대상물로서의 불교문화재가 박물관

리와 대상을 제작연대의 하한선 결정문제도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성보는 일단 정성어린 신앙행위와 결부되기 때문에 본래의 종교적 의미를 살리면서 보존해야 한다"는 홍운식 동국대 박물관장의 지적은 성보 보존을 위한 적절한 지침



◇ 불림사지 석조삼존불상(전북대 박물관 소장). 사찰문화재의 보존실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일 문화재 반환협상 절실" 日 민간소장 3만여점 회수 방안 내바

배재대 정순호교수팀

광복 50주년을 맞아 해외 유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재대 정순호교수팀이 '일제의 문화재 약탈과 그 해결방안'이란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 논문은 지난달 30일 학술진흥재단에서 대한국제법학회와 한국정신대연구회가 공동주관한 '청산하지 못한 일제 시기의 문제' 주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차원의 연구 성과를 모은 것이다. 약 6만8천7백여점의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중 일본에 있는 것은 절반에 가까운 3만여점.

모든 문화재의 반환문제를 논의하는 한·일간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의 한 부분으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나 한국정부는 4천4백79점의 문화재 반환을 요구해 1천4백32점을 반환받았을 뿐, 민간소유의 문화재 반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정교수는 △완전반환이나 △장기대여 형식의 실질적 반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교환전시의 의무화, △금전배상등의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7~24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문화재반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합의의정서는 유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해 관련 당사국간의 논의에 맡기기로 해 한·일간의 문화재 협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박물관 건립·복제물 전시 정보 신앙성 유지등 제안

에 소장함으로써 아끼릴 신앙성의 상실을 우려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계종 문화사회부는 복제물도 성보박물관에 보관되는 성보를 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많은 성보를 다시 제작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각 교구 산하 사찰을 대상으로 성보 실태를 조사, 성보 등록대장을 만들 것을 지시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비지정문화재 처

으로 보인다. 한편 사찰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불교문화재 보존실태와 향후 보존대책/홍운식(대보 8) △문화재관리에 관한 연구: 사찰문화재를 중심으로/박재근(동국대 석사논문) △한국 문화재 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연구/송용기(동국대 석사논문) △부석사를 통해 본 사찰문화재의 보호이전근(불교미술 3) 등이 있다.

김재경 기자

"조선시대 사경 일반대중 중심 제작"

장흥식 교수 논문서 밝혀 우리나라 사경(寫經)미술에 대한 연구가 고려시대의 금은자(金銀字) 사경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시대 사경의 현상(現狀)과 발달을 분석, 이 시대 사경미술의 조성배경과 편년(編年) 및 양식을 고찰한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국대 장흥식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의 학회지인 《미술사학연구》204호에

발표한 논문 '조선시대 사경'을 통해 "고려 사경이 국왕, 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사업이 대중을 이루었음에 비해 조선의 사경은 건국 초기부터 왕실은 물론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추복(追福)에 더욱 치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선시대 사경은 차츰 시대가 내려오면서 왕실주변의 권력층에서 일반대중을 중심으로 사경 불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학회지 203·204호 발간 미술사학연구회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통도사

(소유자작경성) 天下溪山作勝處 (천하계산작승처) 誰能托手共同遊 (수능탁천공동유)

은 세상의 파도 잔잔하니 용이 숨고 은 하늘의 구름 고요하니 학 만세무

통도사 전각 당우들의 주련 가운데 이만 세루의 주련 내용이 가장 서정성이 짙은 것 같다. 파도와 하늘과 구름, 학, 금사강 여울물 소리, 천고, 경암의 소리, 산, 개울들의 단어들 이 이뤄내는 서정성이 매우 격조 높게 하나

우주만물과 하나된 기쁨 노래



◇ 통도사 만세루는 현재 기념품판매장으로 쓰이고 있다.

단정적 호소가 읽는 이의 가슴을 뛰게 한다. 이 주련의 내용은 단순히 서정적 감성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의 용과 학의 움직임, 시간을 뛰어 넘은 여울물 소리와 현

제의 독경소리, 그것들이 천하의 산과 개울에 그득히 퍼지는 광경을 '나 몰라라' 할 사 람은 정말 없을 것이다. 그 세 계야말로 극락세계의 아름다 움이겠기에. (인동 경인중 교사)

육조스님이 회(懷)지방에 머문 이유

문 오조 흥인대사께서 육조스님께 의발을 전하시며 길을 떠나라고 할 적에 육조께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조께서 이에 '회(懷)지 고집에선 머물고 회(會)지 고집에선 김추라'고 하셨습니다. 김추 회 지에선 드러내고 만발 회지에선 김추라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연도순·서울 성북구 돈암2동)

답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알려주고 또는 대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발로 가는 것이요? 오조스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마음이 되어 법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머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고가는 인연 막지 않는다' 뜻은

문 말씀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짐작컨대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생활한다는 뜻으로 사료되나만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

지 상 상 탐

길을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대해 의문이 나타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이 지상상탐은 조계종 한미연합회 대법스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지상상탐은 조계종 한미연합회 대법스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다해도 막지않고 부처가 간디해도 붙잡지 않는 것이요?

문 온다 간다, 막는다 붙잡는다에 걸려서 는 안됩니다. 수행자라면 가는 인연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는 인연 애써 막지 않습니다. 마구니가 온다해도 꿀꺽 삼키고 부처가 온다해도 꿀꺽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않고서는 이 도리를 남들하기 어렵습니다만 요컨대 가는 것 잡지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 함은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 오는 것도 법이요 가는 것도 법인데 온다 간다로 야간스레 굴 것이 없다는 것이요. 공부하는 중의 수행자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번뇌와 보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문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관찰해 보면 잠시도 쉬지 않고 환나에 일어났다기 참나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를 생멸심이라고 하는 줄 아는데요. 이 생멸심이 고요하고 요한 경지에 이르러 적멸의 경지에 이르러야 참 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생멸심과 적멸심,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고도 하는 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도형·광주시 동구 학동)

불법 말고도 진리 얻는길 있는지

문 대학원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동안 공부과정에서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불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리를 얻는 방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박한광·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법 아닌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불'이고 생각하고 응용하고 돌아가는 이 모든게 '법'이지요.

쉽게 말해 삼라만상이 다 불법이고, 생활이 그대로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불법을 떠나서 따로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법 아닌게 하나도 없는데 그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따로 이름짓지 말고요.

海東佛敎大學

— 통신 수강생 모집 —

- 법사(法師)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 운영할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불교의식 과정
조직예불, 불공식, 49제, 다비식에 이르기까지 완전 기초부터 통신으로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남녀 승속 불문하고 누구나 통신 수강할 수 있음.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에 받기 때문에 특강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사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수시 입학 가능 ※
문의처: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향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 741-0495~6 FAX 763-4603

교직자 양성전문교육

제15기 佛敎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아산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경, 요령, 범고)다루는 법, 도량식, 찻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업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0명
- 교육기간: 3개월(각과정)
- 구비서류: 본 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1995년 6월25일~7월24일까지
- 개강일시: 1995년 7월24일 오후5시 정각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참견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 통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뒤 허리우드극장에서 중요방향
구산빌딩 앞 경향빌딩 2층
☎ 741-0495~6 FAX 763-4603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靑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5학년도후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큰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7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강사**

1학년 교과목	법회사상, 회암사상, 반야사상,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 권단훈(동국대교수), 박종(불교통신대학장), 성본스님(승가대교수), 서운경(동국대교수), 홍운식(동국대교수), 한정심(불교교회원장), 종병스님(승가대교수), 임도스님(전포교원장)
2학년 교과목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인도불교사, 불교미술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정병조(동국대교수), 권기중(동국대교수), 한보광스님(동국대교수), 정학스님(포교원장), 김용표(동국대교수), 오형근(동국대교수), 이만(동국대교수), 김명태(동국대교수), 정승석(동국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 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재제공)	1995년 6월 24일~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총무원불교교과관 1층	통신반은 지방거주자 나 출석수강이 어려 운자만 가능

- 4. 개강일시**
1995년 8월 5일(토) 오후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 722-0408, FAX: 732-1207
◎ 서울: 보련각(조계사안):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246-4321
◎ 광주: 금강불교백학점: 671-0451 ◎ 대구: 삼영불교서림: 425-4097
본대학 사무국: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 1층
※ 특전사항: 상기과정을 졸업한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사증 수여
- 6. 원서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